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준·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인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천안 하늘·나무리 PSPD 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과학, 보건의료, NGO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담당: 한재각 hancik@pspd.org : 723-4255, )  
제 목 '인간 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  
날 짜 2000년 8월 9일 (수) (총 3 쪽)

## 보 도 협 조 요 청 서

### 인간 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

일시 및 장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8월 18일(금)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8월 18일(금) 오후 3시부터 6시 까지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인간 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별첨자료 참조)
2.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초안 결과가 발표된 이후 그것의 과학적 의미나 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과학적 의미와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개인 유전정보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친자확인, 질병 진단 및 범죄자 식별 등에 개인유전정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의 활성화 계획으로 앞으로 개인 유전정보의 수집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개인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없을 뿐더러 개인 유전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차도 부족한 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과학센터가 주요 병원 및 국립 연구소 등에 대해서 조사한 국내의 인간 유전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공개할 예정이며, 올바른 이용방안과 개인의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3. 이번 토론회의 발표자로는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과학적 측면을 서울대 강현삼 박사,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김동광 과학세대 대표, 유전정보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 김상득 박사, 국내의 개인 유전정보활용 현황을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활동가가 발표하며 과학기술부 공공기술개발과 담당자, 정규원 한양대 법학과교수,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 담당자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문의는 02-723-4255 (한재각) 끝.

- 별첨자료 : 『인간 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 기획안